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정 선 영

(인천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는 기존연구와 척도의 형식을 따라 다문화 인식·다문화 지식·다문화 기술로 나누었다. 문화적 다양성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관련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다문화 인식·다문화 지식·다문화 기술을 측정하였다. 또한, 자기평정식 척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응답자가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 뿐만 아니라 이에 대비되는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여 그 점수 차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척도는 1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내용타당도·구인타당도·구성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문화적 유능감, 다문화, 예비 사회복지사, 척도 개발

1. 서론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11년 현재 140여만 명으로 2007년 8월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d.). 다문화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332-2011-1-B00296).

**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논문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일곱 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2008년 285억 원에서 2010년에는 59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10. 11. 03).

다문화인구를 위한 사회 정책의 증가로 다양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전문 인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종교단체)는 총 1,064개로 2009년의 743개에 비하여 43.2%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 9. 26). 이들 기관별로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평균 3~4명 정도로 가정하면 총 종사 인력은 3,100~4,300명 정도가 되며, 각 기관에서 상근·비상근으로 일하는 각종 인력(예: 한국어강사, 방문교육지도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기관 종사자의 60.4%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민무숙 외(2009)는 이들 대부분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측면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문화 현장에서 다문화집단을 지원하는 전문직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이 언급되고 있다. 문화적 유능감은 다인종·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자나 기관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정서, 가치, 의사소통 방식, 지식, 기술, 임상적 추론, 자기 성찰 능력 등을 주의깊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Epstein and Hunder, 2002). 문화적 유능감은 여러 발달 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이는 단기간에 걸쳐 발달되지 않는다.

문화적 유능감을 다문화 인식·지식·기술로 크게 나누어 본 연구들은 다문화 현장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지식 수준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거나(민선영, 2008) 다른 영역에 비해 타문화나 이주자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민무숙 외, 2009)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현장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수준이 균형있게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으로 전문성의 부족과 함께 교육 부재를 꼽았다는 최원희 외(2008)의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현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이들이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비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문화적 유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문화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복지 교육의 실시와 함께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예비 사회복지사의 범위를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사회복지사나 다문화현장 실천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척도를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에게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들 척도는 “나는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 한국의 클라이언트와 똑같은 태도로 대한다(최소연, 2010)”와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노충래·김정화, 2011)”는 문항과 같이 현재 다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만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문화 현장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응답하게 제작되어 있는 기존의 척도로는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도 있으나(예: 민성혜·이민영, 2009; 정지연·김영환, 2012) 이들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다문화 인식·다문화 지식·다문화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이나 교차문화적 역량과 같은 문화적 유능감의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문화적 유능감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의 척도(예: Cuevas, 2002; D'Andrea et al., 2003; Suarez-Balcazar et al., 2010)를 번안하여 수정·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다문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과 다르다는 점에서(예: 가족이주 vs. 결혼이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예비 사회복지사 대상의 다문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척도는 응답자가 자신의 인식·지식·기술 수준에 대해 스스로 기능하여 리커트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최대한 조정하기 위하여 문용린 외(2002)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의 틀을 따랐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각각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채점은 인권과 관련없는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보다 인권과 관련된 문항에 더 높게 평정한 평정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원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이후에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감수성 지표(문미희, 2005)를 개발하는데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 외(2002)의 채점 방식 외에 다양한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척도의 구성체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에피소드 및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척도의 문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점하였을 때 어떠한 채점방식이 가장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척도의 구성체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척도는 에피소드 및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문헌연구

1) 문화적 유능감의 정의 및 구성요소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은 사회복지의 존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천적 기술(송기범·장은동, 2010)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의학, 간호

학, 교육학, 심리학 등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경영학, 마케팅, 국제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이다(Lum, 2007). 문화적 유능감은 1960년대 사회변혁 운동의 결과로 문화적 다원주의가 대두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Gallegos, 1982).

Cross 외(1989)는 문화적 유능감을 정의하기에 앞서 '문화'란 언어, 사고 의사소통기술, 행동, 습관, 신념, 가치, 인종, 민족, 종교, 사회적 집단과 같은 제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인간의 행동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적 유능감은 "서비스 전달체계나 기관, 실천가 개인이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된 행동이나 태도, 정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은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문화-특성적 실천(culture-specific practice)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노충래·김정화, 2011 재인용).

학자들은 문화적 유능감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예: Bitonti et al., 1996; Weaver, 2005; Lum, 2007). 첫 번째 요소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혹은 문화적 인식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문화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각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경험되는 현실을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원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인 다문화 지식(multicultural knowledge)은 다문화 집단이 갖고 있는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가족체계, 예술적 표현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소는 다문화 기술(multicultural skill)로, 기존의 주요 서비스 모델이나 개입전략과 관련된 이론과 원칙들이 다문화집단에 적용될 때 갖는 장점과 한계점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문화적 변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적 역량의 각 구성요소는 상호작용하면서 그 영향을 발휘하는데, 즉 다문화 기술은 다문화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적 인식은 다문화 기술을 통해 발휘된다.

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긴 미국·캐나다·호주와 같은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유능감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NASW])의 윤리강령과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f Social Work Education[CSWE])의 인증조건에는 사회적 다양성과 이에 따른 억압,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연구,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증진이 사회복지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적 유능감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민선영(2008)은 사회복지사의 성별·연령·직위·학력·문화적 유능감 교육 경험은 문화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가치인식과 옹호활동 수준은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신뢰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강조하는 미시적 가치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사회 개선과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옹호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경과 이주재(2012)는 크게 개인요인과 기관요인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개인요인에서 옹호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사는 전체 문화적 유능감 수준이 높았으며 다양성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인식 수준이, 임파워먼트 수준과 다문화 교육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지식 수준이, 공감 수준과 옹호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기술 수준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기관요인으로는 다문화 슈퍼비전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문화적 유능감 수준과 문화적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지(2011)는 다문화 실천인력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을 보았을 때, 외국을 방문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외국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방문횟수가 많은 집단의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거주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장기거주 집단은 단기거주 집단보다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업적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유무와 사회복지사 급수(1급과 2급)는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특화 기관에 근무할수록, 클라이언트에서 다문화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제공한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전체 문화적 유능감 혹은 문화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각 연구에서 다양한 설명변인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교육 경험이 문화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민선영(2008)의 연구에서와 달리 최혜지(2011)의 연구와 이재경과 이주재(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연구대상이 참여한 다문화 관련교육의 질과 양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 관련교육이 문화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동일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들은 크게 외국어 능력과 외국 체류 경험 등이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토폴집수를 통해 측정한 외국어능력은 대학생들의 문화적 지능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Moon, 2008)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통한 타문화의 경험이 문화적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옥순, 2010). 또한,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집단은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문화적 사고, 동기, 그리고 행동의 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옥순, 2010). 한편, 외국에서의 자원봉사경험이나 외국인과의 친밀도는 대학생의 문화적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성혜·이민영, 2009). 그러나 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적 유능감 관련 개념은 문화적 지능, 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사고·동기·행동 등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각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도구

국내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적 유능감 측정도구를 크게 번안 척도와 국내 제작 척도로 나누어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연구에 사용된 문화적 유능감 관련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척도	타당도	신뢰도
번안 척도	장은동(2012)	개념타당도 교차타당도	전체=.95; 문화적 인식=.83; 문화적 지식=.92; 문화적 기술=.94
	이재경·이주재(2012)	내용타당도	전체=.92; 문화적 인식=.74; 문화적 지식=.87; 문화적 기술=.93
	민선영(2008)	내용타당도	전체=.90; 다문화적 인식=.65; 다문화적 지식=.92; 다문화적 기술=.89
	최혜지(2011)	내용타당도	문화적 인식=.79; 문화적 지식=.83; 문화적 기술=.83
	정지연·김영환(2012)	-	전체=.87; 참여의지=.82; 인지적 유연성/개방성=.77; 감정조절=.7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73; 자기효능감=.82; 문화공감=.65
	민성혜·이민영(2009)	-	전체=.74
국내 제작	최소연(2010)	내용타당도	문화적 지식 및 기술=.95 ;문화적 태도=.89; 문화적 인식=.77
	노충래·김정화(2011)	수렴타당도	전체=.93 ;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82 ; 다문화 지식=.79; 다문화적 실천기술=.86; 문화차이 극복노력=.68
	최승희·김성희·임명희 (2008)	기준관련타당도 논리적구성타당도	문화적 통합=.79; 문화적 지식=.89; 문화적 기회균등=.71; 문화적 독특성=.66; 언어 사용=.68

번안 척도의 경우,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다문화 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취합·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문화 현장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용된 번안 척도를 살펴보면, 장은동(2012)은 Lum(2007)의 사회복지 문화적 역량 자기평가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척도에 사용된 문항에는 “나는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나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체계이론

또는 심리사회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이 있다.

민선영(2008)과 이재경과 이주재(2012)는 Fong 외(1998)가 제작한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적 인식-지식-기술척도(MAKSS-SW)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최혜지(2011)는 다문화 실천인력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 상담 조사목록(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MCI]¹⁾), 문화적 자기효능감 척도(Cultural Self-Efficacy Scale[CSES]²⁾), 다문화 상담 지식과 인식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Knowledge and Awareness Scale[MCKAS]³⁾), 다문화 인식-지식-기술 척도(MAKSS⁴⁾)와 같은 기존의 외국 척도의 문항을 번역한 후 다문화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적절성과 중복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문화적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번안 척도를 살펴보면, 정지언과 김영환(2012)은 대학생의 이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교차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제작된 교차문화적 유능감 척도(Cross-Cultural Competency Inventory[CC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참여의지,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는 데 대한 흥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문화적 공감 등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자신의 접근 방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쉽게 나의 전략을 바꿀 수 있다.” 등이 있다. 민성혜와 이민영(2009)은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Cuevas(2002)의 문화적 인식 척도(Cultural Awareness Scale[CAS])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예로는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도와주기가 힘들다고 본다.” 등이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문화적 유능감 척도는 문헌연구, 외국의 기존 척도, 다문화 집단과 다문화 전문인력의 인터뷰를 토대로 문항을 제작되었다. 최소연(2010)은 문헌연구 및 결혼 이주여성과 실천전문가 대상 면접을 통해 원조전문직(helping professionals)의 문화적 유능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 학습한다.”, “나는 내가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안다.” 등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충래와 김정화(2011)는 국외의 기존 문화적 역량 관련 척도의 문항을 번역·분류·통합하고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장벽들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이 있다.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승희 외(2008)는 Cushner(1992)와 Plata와 Pirtle(1997)의 문항을 번역·수정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경험내용과 기존의 문헌 연구들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

1) Sadowsky, Taffe, Gutkin, and Wise(1994)
 2) Bernae and Froman(1987)
 3) Ponterotto, Gretchen, Utsey, Riger, and Austin(2002)
 4) D'Andrea, Daniels, and Heck(1991)

로는 “이주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 중의 하나이다.” 등이 있다. 문화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다문화 인식·다문화 지식·다문화 기술과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노충래와 김정화(2011)의 표를 토대로 각 내용을 반영하는 번안 척도 및 국내 제작 척도의 예시 문항 일부와 출처를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척도의 문항과 출처*

요소	구체적 내용	기존 척도 문항의 예시	출처
인식	- 실천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	“내가 가진 문화적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는 교육이나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Cuevas(2002)
	- 타집단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최소연(2010)
	- 자신의 문화와 타 집단 문화와의 차이, 원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기	“나는 나와 클라이언트간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있다.”	노충래·김정화(2011)
	- 겸손, 존경, 개방성, 비심판적 태도, 사회정의 등의 가치를 견지하는 것	“나는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가치와 신념을 주입하려 하지 않는다.”	최소연(2010)
지식	- 역사: 특정 인구집단의 경험적 역사, 입국 및 이주 관련 역사에 대한 지식	“나는 특정 다문화집단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Lum(2007)
	- 문화: 특정 인구집단의 의사소통 유형, 세계관, 신념 체계, 가치관 등에 관한 지식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믿는 종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노충래·김정화(2011)
	- 현실상황: 집단 내 단체 및 조직, 지역사회 내 정착상황, 지원법률 및 제도, 사회적응 상황 및 과정, 정신건강 문제, 가족 상황, 강점 및 약점 등에 관한 지식	“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장벽들을 이해하고 있다.”	노충래·김정화(2011)
	- 문화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틀을 형성하는데 익숙해지는 것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노충래·김정화(2011)
기술	-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강점을 고려하면서 사정한다.”	노충래·김정화(2011)
	- 민감한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나는 다문화가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알고 있다.”	최소연(2010)

* 각 구성요소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노충래·김정화(2011)가 김연희(2007), Weaver(2005), NASW(2001), Sue(2006), Lum(2007)에서 언급된 문화적 유능감의 요소를 정리한 것임.

외국에서 제작된 척도를 번안하는 경우 외국의 다문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과 다르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령, 외국의 다문화 현상은 백인이 주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

에 진입한 유색의 이민자 집단을 다루고 있으며, 이민자 집단은 대체적으로 가족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유입된 개인단위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 제작된 문화적 유능감 척도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있지만 평정자가 바람직한 문화적 유능감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항을 읽고(예: “나는 나와 클라이언트간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있다.”) 자신의 인식·지식·기술 수준을 스스로 가늠하여 리커트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에피소드 형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예비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하다. 첫째, 에피소드 형식을 통해 다문화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존 척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예비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현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현장에서 자신의 인식·지식·기술 수준을 평가할 준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에피소드는 응답자에게 동일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높인다. 다문화 현장 경험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문화적 유능감 수준이 비슷한 응답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제시는 동일한 준거를 응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에피소드 형식을 차용한 문용린 외(2002)와 문미희(2005)의 척도는 인권감수성을 다루고 있다. 감수성은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인 자기인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는 인식영역에만 적용되었던 에피소드 형식을 다문화 지식과 다문화 기술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데에도 적용하여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1) 모형 및 에피소드 개발, 2) 문항과 진술문 개발 및 예비검사, 3) 본검사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형 및 에피소드 개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를 다문화 인식·지식·기술로 구분한 선행연구와 기존의 접근방법을 수용하였다. 각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화적 유능감의 내용은 앞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국내의 다문화 집단을 크게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전문인력 혹은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다. 또한, 장애·동성연애·비만·종교차별 등 광의의 다문화 집단을 포함하는 에피소드도 제작하였다. 이들 집단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문화적 편향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종 편견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극단의 경우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문화적인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다문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논의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Sue, 2006). 그러나 문화적 유능감은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다문화 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의 비주류 집단에 대한 에피소드도 제작하였다.

에피소드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문화 현장의 사회복지사 2인과 다문화 사회복지 수업을 강의한 교수자 3인 및 다문화 사회복지 수업을 수강한 학생 5인을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관련 전문서적(예: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윤진 역, 2008)', 다문화 관련 인터넷사이트(예: 외국인노동자센터), 인터넷 뉴스를 비롯하여 대중매체에 소개된 사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와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조교는 총 49개의 에피소드를 제작하였으며, 개발된 에피소드의 예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2) 문항과 진술문 개발 및 예비검사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문화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총 6인이 49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응답자가 다문화 인식·지식·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에피소드를 20여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에피소드를 통합하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최종 선정된 20개의 에피소드에 대하여 각각 다문화 인식·지식·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척도는 바람직한 문화적 유능감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항을 읽고 리커트식으로 평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용린 외(2002)는 인권감수성 지표를 개발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을 찾는 형식(선다형)과 인권과 관련된 진술문과 그에 대비되는 가치를 지닌 진술문에 대해 각각 중요도를 반응하도록 하는 리커트식의 두 가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선다형으로 제작된 문항의 경우 높은 정답반응률을 보이면서 민감성 측정에 예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용린 외(2002)는 후자의 방식을 이용하여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진술문과 이에 대비되는 가치를 보이는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인식·지식·기술에 부합하는 정도를 리커트식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그림 1> 참고). 문용린 외(2002)의 방식을 따라 총 60개의 문항(=20개의 사례×인식·지식·기술 3 영역의 문항), 즉 총 120개의 진술문(각 문항은 2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됨)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진술문은 다문화 현장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받았다.

경인지역 사회복지학과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에피소드와 진술문에 대한 질문내용과 문항반응빈도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수정하였다. 각 진술문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인식·지식·기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리커트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진술문(예를 들어, 70% 이상의 학생이 "매우 일치한다."를 선택한 경우)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진술문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을 수정하였다. 예비검사 후 수정·보완된 척도의 스무 개 에피소드 중 한 에피소드와 그에 따른 문항과 진술문의 예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에피소드에는 인식·지식·기술에 해당하는 문항이 순서대

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두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혼을 원하는 결혼이주 여성

20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 A씨는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는 A씨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일주일마다 서너 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생활비와 생활용품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를 방문한 날도, A씨는 입을 옷이 없어 남편의 헤진 옷을 입은 상태였다. 그동안 식사로는 찬밥과 김치만 먹을 수 있었으며,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장만하기는 했지만 A씨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축사에서 소를 돌보아야 했다고 한다. A씨는 노예와 같은 이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다음 의견들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매우 다르다 ①	약간 다르다 ②	약간 일치한다 ③	매우 일치한다 ④
1.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족을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2. 가족의 해체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는 다음 의견들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⁵⁾

	매우 다르다 ①	약간 다르다 ②	약간 일치한다 ③	매우 일치한다 ④
1. A씨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귀화신청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마자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이 있다.				
2. A씨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남편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당신이 취할 행동은 다음 의견들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매우 다르다 ①	약간 다르다 ②	약간 일치한다 ③	매우 일치한다 ④
1. A씨의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A씨에게 경찰서 신고를 안내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하고 컴퓨터를 안내해 준다.				
2. A씨 남편과 다시 화해를 시도하여 결혼생활을 통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유한다.				

〈그림 1〉 에피소드, 문항, 진술문의 예

5) 다문화 지식 문항의 2번 진술문은 문화적 지식 진술문이며 1번 진술문은 대비되는 가치(비문화적 지식)의 진술문이다. 2번 진술문의 평정점수가 1번 진술문의 평정점수보다 높을 경우에만 점수를 합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된다. 구체적인 점수 합산방법은 본검사를 통해 3가지의 점수 합산방법을 시도하여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정하였다.

3) 본검사

(1) 본검사 대상

본검사는 경인지역 사회복지학과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실시하였다. 본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학생들의 만 연령은 평균 20.92세이고 70%가 여학생이며 53%의 학생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77%의 학생이 외국인과 수업을 함께 들은 경험이 있고 52%의 학생은 외국인과 직접 만나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국문화 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변 인	명 (%)	변 인	명 (%)
만 연령 (평균(표준편차))	20.92 (3.08)	외국문화 경험:	
성별: 여학생	43 (70)	외국거주경험	9 (15)
남학생	19 (30)	해외여행	21 (34)
종교: 없음	33 (53)	해외연수	6 (10)
불교	3 (5)	국제교류동아리 활동	4 (7)
기독교	17 (28)	외국인과 수업 참여	48 (77)
천주교	7 (12)	외국인과 직접 만나 교류	32 (52)
기타	1 (2)	외국인과 온라인상 교류	27 (44)
경제수준: 상	1 (2)	외국인과 혼인한 친지	9 (14)
중	57 (92)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	30 (48)
하	3 (5)		

(2) 본검사 분석방법

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진술문을 확인 및 제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진술문은 쌍을 이루는 다른 진술문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 구성요소(예: 다문화 인식·지식·기술)를 측정하는 문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진술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전체 진술문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인식에 해당하는 한 진술문이 전체 다문화 인식 영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경우 이 진술문을 제거함으로써 다문화 인식 영역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으나 해당 에피소드에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다섯 개의 진술문도 제거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다문화 지식이나 다문화 기술 문항의 신뢰도는 저해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전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에피소드를 제거하였다.

둘째, 최종 선정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점수 합산방법을 시도하였다. 문용린 외(2002)의 경우는 인권과 관련된 진술문의 점수가 그에 대비되는 가치를 지닌 진술문에 비해 높을 때는 인권 관

런 진술문의 원점수를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진술문의 난이도가 동일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점수를 그대로 취득하여 최종합산을 하는 것은 타당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점수가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에 비해 높을 때 1)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에 1점을 부여하는 방법(1/0 방식), 2) 문용린 외(2002)의 방법과 같이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원점수를 취하는 방법, 3)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점수에서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점수를 뺀 점수를 취하는 방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 때 모든 방법에서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점수가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에 비해 낮을 때는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각 점수 합산방법을 통해 산출된 다문화 인식·지식·기술 영역의 총점을 합한 것은 문화적 유능감 점수에 해당된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점수 합산방법을 적용하여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 척도의 구성체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대학생의 외국문화 경험은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예: 민성혜·이민영, 2009; 김옥순, 2010; Moon, 2008) 다양한 외국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반복측정 분석(repeated measure analysis)을 통해 에피소드 및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반복측정 분석은 개인차에서 기인하는 개인간 변량을 오차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문화적 유능감 측정에 미치는 에피소드의 효과 및 구성요소의 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SE 10.0이 사용되었다.

4. 본검사 결과분석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총 120개의 진술문으로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영역과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영역으로 나누어 총 6개 영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신뢰도를 낮추는 하나의 진술문을 삭제하는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속해있는 전체 진술문을 삭제하는 것과 같으므로, 6개 영역의 신뢰도를 골고루 높이기 위하여 어떤 에피소드를 삭제해야 하는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각 영역의 최종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4개의 에피소드가 제거된 최종 척도는 홈페이지⁶⁾에 탑재되어 있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영역은 문화적/비문화적 진술문 영역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문화적/비문화적 지식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허용할 수 있는(acceptable) Cronbach Alpha 계수의 최소값이 .6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DeVellis, 1991), 비문화적 지식 진술문의 계수는 .57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6)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 → 양식 및 서식 → 1번 서식

http://socialwelfare.incheon.ac.kr/cls/class15/community/free__view.jsp?spcnt=3&schflag=&schword=&boardCode=AH&seq=83

점을 알 수 있다. 비문화적 지식 진술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에피소드를 제거해 보았으나 다른 영역의 진술문 신뢰도를 낮추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4>의 신뢰도를 최종 신뢰도로 보고하였다.

<표 4> 영역별 신뢰도

구성요소별	문화적	비문화적
인식 영역의 진술문	.64	.62
지식 영역의 진술문	.60	.57
기술 영역의 진술문	.72	.71
전체 진술문	.86	.84

최종 선택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세 가지 점수 합산방법을 적용하여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와 전체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점수가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에 비해 높을 때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에 1점을 부여하는 1)번 방식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 점수에서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진술문 점수를 뺀 점수를 취하는 3)번 방식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점수 합산방법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

	1) 1/0 방식	2) 문화적 문항의 원점수	3) 문화-비문화 차이
다문화 인식 문항	.38	.54	.71
다문화 지식 문항	-	.17	.63
다문화 기술 문항	.57	.62	.78
전체 문항	.74	.79	.89

예비검사를 통해 에피소드와 진술문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으므로 본검사에서는 구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각 구성요소들간의 상관을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점수 합산방법 중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 점수에서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진술문 점수를 뺀 점수를 취하는 3)번 방식에서 문화적 유능감의 각 구성요소간 상관이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도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신뢰도 결과와 <표 6>의 구인타당도 결과를 고려할 때,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 점수에서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진술문 점수를 뺀 점수를 취하는 3)번 방식이 가장 타당한 점수 합산방법이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3)번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6〉 구인타당도 결과

	1) 1/0 방식			2) 문화적 문항의 원점수			3) 문화-비문화 차이		
	전체	인식	지식	전체	인식	지식	전체	인식	지식
인식	.78***			.81***			.89***		
지식	.71***	.36**		.75***	.42***		.87***	.68***	
기술	.82***	.44***	.38**	.85***	.50***	.50***	.90***	.70***	.68***

*** p<.001; ** p<.01

2) 구성체타당도: 외국문화 경험에 따른 점수 차이 분석

구성체타당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 점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21세 미만 집단과 21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인식·지식·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적 유능감의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종교에 따라서도 전체 문화적 유능감과 하위 구성요소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1), 2)}

	연령		성별		종교	
	21세 미만	21세 이상	여자	남자	없음	있음
다문화 인식	15.09 (5.89)	13.71 (6.43)	13.65 (0.76)	16.39 (1.90)	14.16 (1.11)	15.11 (1.11)
다문화 지식	13.72 (4.03)	12.50 (5.77)	12.56 (0.67)	14.61 (1.36)	12.81 (0.85)	13.71 (0.95)
다문화 기술	19.12 (6.57)	16.46 (6.87)	17.40 (1.07)	19.11 (1.48)	16.97 (1.07)	19.21 (1.41)
전체: 문화적 유능감	47.94 (13.86)	42.68 (17.63)	43.60 (2.24)	50.11 (4.18)	43.94 (2.68)	48.04 (3.09)

1) 가구소득의 경우 92%의 학생이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므로(〈표 1〉 참고) 집단별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음.

2) 표의 간결성을 위하여 유의하지 않은 t-test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선행연구는 해외체류 경험, 외국어 능력, 외국인과의 친밀도와 같은 외국문화 경험에 따라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예: 민성혜·이민영, 2009; 김옥순, 2010; Moon, 2008), 본 연구에서는 외국문화 경험에 따라 본 척도에서 측정된 문화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외국문화 경험에 따라 전체 문화적 유능감 및 인식·지식·기술의 하위영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를 직접 만나

교류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인식($t=-2.74, p<.01$)과 기술($t=-2.19, p<.05$)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적 유능감의 수준($t=-2.22, p<.0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나타났는데, 외국거주 경험이 있을수록 문화적 인식($t=1.83, p<.05$)과 전체 문화적 유능감 수준($t=2.23, p<.05$)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집단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다문화 지식($t=2.31, p<.05$)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 8〉 외국문화 경험에 따른 차이¹⁾

	다문화 인식 M(SD)		다문화 지식 M(SD)		다문화 기술 M(SD)		전체: 문화적 유능감 M(SD)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외국문화 경험:								
외국거주 경험 문화적 인식: $t=1.83^*$ 문화적 유능감: $t=2.23^*$	15.00 (0.89)	11.00 (1.07)	13.67 (0.71)	10.11 (0.93)	18.41 (0.95)	13.67 (1.31)	47.08 (2.27)	34.78 (2.09)
해외여행	15.13 (1.03)	13.19 (1.15)	13.53 (0.76)	12.48 (1.12)	19.28 (1.12)	15.29 (1.19)	47.93 (2.55)	40.95 (3.13)
해외연수 문화적 지식: $t=2.31^*$	14.69 (0.86)	13.83 (1.45)	13.70 (0.67)	9.00 (0.73)	18.13 (0.94)	17.00 (2.52)	46.52 (2.20)	39.83 (2.07)
국제교류동아리 활동	14.53 (0.85)	16.25 (1.75)	13.09 (0.65)	14.50 (3.57)	17.87 (0.94)	19.50 (2.75)	45.49 (2.18)	50.25 (5.81)
외국인과 수업 참여	13.07 (1.42)	14.93 (0.94)	12.57 (0.81)	13.30 (0.79)	16.86 (1.64)	18.04 (1.03)	42.50 (3.27)	46.28 (2.49)
외국인과 직접 만나 교류 문화적 인식: $t=-2.74^{**}$ 문화적 기술: $t=-2.19^*$ 문화적 유능감: $t=-2.22^*$	12.31 (0.92)	16.41 (1.15)	12.69 (0.84)	13.59 (0.93)	15.97 (1.13)	19.55 (1.24)	40.97 (2.60)	49.66 (2.90)
외국인과 온라인상 교류	13.32 (0.74)	15.89 (1.48)	12.76 (0.63)	13.67 (1.18)	17.12 (1.10)	18.89 (1.39)	43.21 (2.08)	48.44 (3.71)
외국인과 혼인한 친지	14.04 (0.69)	16.89 (3.56)	13.04 (0.56)	13.89 (2.87)	17.65 (0.87)	19.33 (3.17)	44.73 (1.82)	50.11 (9.09)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	14.22 (0.85)	14.72 (1.38)	12.78 (0.70)	13.59 (1.08)	17.25 (1.15)	18.62 (1.32)	44.25 (2.24)	46.93 (3.48)

* $p<.05$, ** $p<.01$

1) 표의 간결성을 위하여 유의하지 않은 t-test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3) 에피소드 및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에 따른 점수 차이 분석

에피소드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민감도가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의 결과는 에피소드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 점수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문화적 인식·지식·기술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하고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에 대한 진술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응답자가 문화적 진술문과 비문화적 진술문의 차이를 덜 인지하는 것이다.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 3가지와 가장 낮게 나타난 에피소드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민감도가 가장 높은 1번 에피소드는 민감도가 가장 낮은 10번 에피소드에 비해 평균 2.7점이 높아 동일한 응답자라고 하더라도 1번 에피소드에서는 더 높은 문화적 유능감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9> 에피소드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응답의 민감도 차이

	자유도	F	유의확률			
			Regular ¹⁾	H-F	G-G	Box
에피소드 개수 잔차	15 915	17.47	0.000	0.000	0.000	0.001

1) 분산-공분산 행렬의 혼합대칭(compound symmetry)을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나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 Huynh-Feldt[H-F], Greenhouse-Geisser[G-G], Box's conservative[Box]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표 10>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에피소드와 가장 낮은 에피소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에피소드 3가지			민감도가 가장 낮은 에피소드 3가지		
제 목	M(SD)	Min-Max	제 목	M(SD)	Min-Max
1. 싸움 잘하는 몽골인?	4.27(2.14)	0-9	10. 새터민의 취업	1.58(1.65)	0-7
7.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3.77(2.45)	0-9	9. 불법체류자	1.65(1.29)	0-5
6. 고용허가제	3.74(2.08)	0-9	20. 누구의 편에서?	1.84(1.76)	0-7

문화적 유능감의 구성요소인 다문화 인식·지식·기술 영역을 측정하는 진술문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에 의하면, 다문화 기술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평균=18.05) 다문화 지식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평균=13.40).

<표 11>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인 인식·지식·기술 영역에 대한 민감도 차이

	자유도	F	유의확률			
			Regular	H-F	G-G	Box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 잔차	2 122	29.51	0.000	0.000	0.000	0.000

〈표 12〉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의 민감도

	M(SD)	Min-Max
다문화 기술	18.05(6.82)	6-37
다문화 인식	14.61(6.20)	5-35
다문화 지식	13.40(5.21)	4-32

5. 결론 및 제언

문화적 유능감은 다문화 실천현장의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발달된다.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문화적 유능감 발달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이를 측정할 척도가 필요하지만 다문화 실천현장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척도는 예비 사회복지사에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척도는 한국의 다문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바람직한 문화적 유능감의 특성을 제시한 후 이 특성이 자신의 인식이나 태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방법은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하여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문용린 외(2002)의 인권감수성 척도의 틀을 활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적 다문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실시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문화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다문화 인식·지식·기술로 구분한 선행연구와 기존척도를 따라 평정자가 다문화 인식·지식·기술의 영역에 대해 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에피소드를 개발하였다. 초기에 개발된 49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20개의 에피소드가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기초한 인식·지식·기술의 각 문항에 해당되는 두 개의 진술문은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본검사를 통해 20개의 에피소드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에피소드는 최종 척도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인식·지식·기술의 각 문항을 구성하는 두 개의 진술문(예: 문화적 인식 진술문과 비문화적 인식 진술문)을 이용해 점수를 산출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한 결과, 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평정점수가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평정점수에 비해 높을 때 이 둘의 점수 차이를 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신뢰도뿐만 아니라 구인타당도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 및 각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63-.8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간의 상관계수는 .68-.70이었다.

셋째, 외국문화 경험이 대학생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예: 민성혜·이민영, 2009; 김옥순, 2010; Moon, 2008)에 기초하여 구성체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를 직접 만나 교류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인식 및 기술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적 유능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과의 교류가 문화적 유능

감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민성혜·이민영, 2009)와 일치한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외국거주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인식과 전체 문화적 유능감 수준이 낮으며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집단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문화적 지식이 유의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본검사 응답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 가능한데, 외국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는 북한 이탈주민과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은 군 제대 후 복학한 남학생이 차지한다.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예: 민선영, 2008; 이재경·이주재, 2012)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전략·가치인식·옹호활동 수준이 문화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적 유능감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인식·태도·지식·기술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 및 유학생과 2년여의 학문적 공백이 있는 복학생은 사회복지학을 지속적으로 접한 학생들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인식·태도·지식·기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외국거주 경험과 해외연수 경험이라는 이들만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에피소드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에피소드에 따라 문화적 유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 반대, 동성연애 성향의 인정, 고용허가제의 적법한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적 인식·지식·기술의 평정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새터민의 자립에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예: “상위기관에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급 지원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예: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한 노동자와 가족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문화적 유능감 구성요소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기술의 수준은 가장 높은 반면에 다문화 지식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지식의 경우는 다문화인구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제도 및 법령의 학습 없이는 습득하기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복지 교육경험이 없는 본검사 응답자에게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문화 기술의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다문화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실천적 기술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습득이 용이한 요소라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본 척도는 다문화 기술의 적용을 관찰한 후에 측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보고식 평정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척도를 통한 다문화 기술의 수준은 높지만 기술의 실제 적용의 수준은 척도 점수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의점과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문화적 유능감 수준을 측정하고 차후에 다문화 사회복지 교육이 진행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구인타당도·구성체타당도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나, 추후에는 안상수 외(2012)가 개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척도(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KMCI])와 같은 기존의 한국형 다문화 관련 척도와 동

시에 측정하여 준거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유능감은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가장 잘 측정되므로(Ponterotto et al., 1994) 해당 에피소드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본 척도와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척도에서는 쌍을 이루는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과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난이도가 동질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평정점수와 비문화적 인식·지식·기술 진술문의 평정점수의 차이를 취하는 채점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추후에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IRT]) 등을 적용하여 각 진술문의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3): 117-144.
- 김옥순, 2010, "청소년의 문화간 역량 연구-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문화지능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51-172.
- 노충래·김정화, 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63(2): 207-231.
- 문미희, 2005, 『에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 문용린·문미희·곽윤정,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민무숙·김이선·이춘아·이소영,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3.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여성정책연구원.
- 민선영, 2008,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1-28.
- 민성혜·이민영, 2009,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83-206.
- 송기범·장은동,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적 역량과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28: 40-69.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2-02』,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윤진 역, 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경기도: 한울.
- 이재경·이주재, 2012,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28(1): 183-204.
- 장은동, 2012, "Lum의 사회복지 문화적 역량 자기평가 척도 한국판 타당화",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연·김영환, 2012, "이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문화교류 역량을 중심으로 본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시민교육연구』, 44(3): 219-244.
- 중앙일보, 2010, "다문화 가족정책 사공이 너무 많다", 2010년 11월 3일.
- 최소연, 2010, "원조전문직을 위한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3-53.
- 최승희·김성희·임명희, 2008, 『문화적 민감성 척도 개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연구보고서.
- 최원희·최혜지·최연선, 2008, "다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화적 유능감 실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89-113.
- 최혜지, 2011, "다문화 실천인력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37(4): 405-43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d.,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http://www.immigration.go.kr>.
- _____, n.d.,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http://www.immigration.go.kr>.
-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2011년 9월 26일.
- Bernae, H., and Froman, R., 1987, “The confidence of community health nurses in caring for ethnically diverse populations”,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4): 201-203.
- Bitonti, C., Albers, E., and Reilly, T., 1996, “Multicultural competence in Nevada human services: A Statewide surve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4(4): 67-83.
- Cross, T. L., Bazron, B. J., Dennis, K. W., and Issacs, M. R., 1989, *Towards a Cultural System of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Cuevas, M. C., 2002,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of social work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TX.
- Cushner, K., 1992, “The inventory of cross-cultural sensitivity”, 176-179,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ction: Skill Building Experiences*, edited by Kelley, N. L., St. Paul: West Pub. Co.
- D’Andrea, M., Daniels, J., and Heck, R., 1991, “Evaluating the impac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143-150.
- D’Andrea, M., Daniels, J., and Noonan, M. J., 2003, “New developments in the assessment of multicultural competenc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Skills Survey - Teachers Form”, 154-167, in *Handbook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edited by Pope-Davis, D. B., Coleman, H. L. K., Liu, W. M., and Toporek, R. L.,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DeVellis, R. F., 1991, *Scale Development*, Newbury Park, NJ: Sage Publications.
- Epstein, R., and Hunder. E., 2002,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7(2): 226-235.
- Fong, R., Daniels, J., and D’Andrea, M., 1998, *The Multicultural Awareness-Knowledge-Skills Survey: Social Worker Edition(MAKSS-SW)*.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a’i-Manoa, School of Social Work.
- Gallegos, J., 1982, “The ethnic competence model for social work education”, in *Color in a white society*. Silver Spring, edited by White, B. W.,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Lum, D., 2007,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s and Justice Issues*. Belmont, CA: Brooks/Cole.
- Moon, T. W., 2008, “The impacts of language profici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on cultur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5(2): 123-145.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NASW), 2001,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 Plata, M., and Pirtle, T. N., 1997, “Cultural sensitivity in testing.” Presented at the Texas Association of Assessment in Counseling, February 18, 1997, Austin, Texas.
- Ponterotto, J. G., Gretchen, D., Utsey, S. O., Riger, B. P., and Austin, R., 2002, “Revis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awareness scal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153-180.

- Sodowsky, G., Taffe, C., Gutkin, T., and Wise, S., 1994,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MCI): A self-report Measure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37-148.
- Suarez-Balcazar, Y., Balcazar, F., Taylor-Ritzler, T., Portillo, N., Rodakowski, J., GarciaRamirez, M., Willis, C., 2010,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 Center for capacity building for minorities with disability research",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Sue, D. W., 2006,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Hoboken, N.J: Wiley.
- Weaver, H. N., 2005,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CA: Thomson Brooks/Col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Prospective Social Workers

Jung, Sunyo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prospective social workers. The scale adopted three constructs of cultural competence, which include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It was made up with concrete episodes based on which respondents rate sets of competing statements relating to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The score of each item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each score of non-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from the corresponding score of 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when cultural statements got higher scores than did non-cultural statements. Each score was summed up to make a total cultural competence score. Through preliminary and main test, 16 episodes and corresponding sets of statement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version. The final scale showed satisfactory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and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is scale were discussed.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Prospective social workers,
Scale development

[논문 접수일 : 13. 01. 25, 심사일 : 13. 02. 13, 게재 확정일 : 13. 03. 29]